‘범죄전문기자’ 부재가 낳는 지루한 도돌이표

안양 어린이 유괴사건 보도의 문제점 및 제언

표창원 경찰대학 행정학과 교수

혜진, 예슬 그 꽃보다 예쁘고 여린 영혼들이 겪었을 참혹하고 지옥 같은 고통에 분노하지 않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 더욱이 지난해 제주 양지승 어린이, 그 전해 용산 허 모양 사건이 아직 기억에서 잊혀지지도 않았는데 다시 발생한 닮은꼴 비극에 안타까움을 넘어 허탈함이 온 사회를 뒤덮었다.

우리 모두가 이 어린이들을 지켜주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고,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필요한 변화를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주로 경찰에 대한 언론의 비판이 제기되었으니 오늘은 어린이 유괴사건 보도를 둘러싸고 드러난 언론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변화 방향에 대해 짚어 보고자 한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큰일을 많이 겪어서인지 웬만한 일은 쉽게 잊는 습관이 뱄다. 하지만 이번 안양 사건 때는 달랐다. 흔적도 없이 실종된 지 2개월이 훌쩍 넘도록 언론과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보도를 했고 목격자를 찾는 호소가 계속되었다.

시민과 네티즌이 이어 온 ‘관심의 끈’

언론과 방송이 갑자기 ‘공익성’을 중시하며 달라져서라기보다 온 동네에 노란 리본을 매달고 자전거로 전국을 일주하며 두 어린이를 찾아 나선 시민들과 연대서명 청원을 하면서까지 자발적 수색대로 나선 네티즌 덕에 기사 가치(news value)가 유지, 확대재생산된 것이 더 큰 원인인 듯하다.

일정 지면이나 분량을 지역사회 공헌에 할애하도록 하고 있어 국영방송 BBC에서는 범죄 공개수배 프로그램인 크라임워치(Crimewatch)를 정규편성하고, 지방 방송과 신문에서는 범죄예방 조언과 공

A12 2008년 3월 17일 월요일 사회 제26947호 동아일보

경찰 "빌린 車 트렁크서 예슬-혜진양 혈흔 발견"

■ '안양 초등생 피살-실종' 용의자 검거

"시신 유기에 車 이용한듯" 렌터카 업체 뒤져

용의자는 혜진양 집에서 130m 떨어진 이웃

절도 전과있는 독신… 보령 모친 집에서 잡혀

검거 뒤에도 "억울하다… 예슬이 행방 모른다"

"어떻게 이럴 수가…"

혜진-예슬양 가족 울분

범행 동기 불분명… 왜 협박 전화 한통도 없었나

■ 풀리지 않는 의문점

안양 초등학생 실종 피살사건 일지

안양 초등생 피살 – 실종 용의자 검거를 보도,동아일보 3월 17일자

개수배를 싣는 크라임스토퍼즈(Crimestoppers) 코너를 운영하는 영국과 달리, 우리 사회에서 범죄 사건은 '특이하고 충격적'이어서 대중의 관심을 끌어야만 언론과 방송의 취재대상이 되는 현실을 잘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미국 언론의 경쟁적인 선정적 범죄보도에 뒤이은 사회적 공포의 확산과 모방범죄 현상을 지적하며 피시맨(Fishman)은 "특정 범죄 사건에 대해 미디어가 집중 보도를 하게 되면 사람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범죄도 증가하며 그에 따라 또 매스미디어에서 범죄 보도를 하게 되고 다시 그 영향으로 범죄가 증가하는 '범죄의 물결'(crime waves) 현상이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이번 안양 사건 보도에 사용된 일부 언론과 방송의 표현이나 묘사 등을 보면, 실종 어린이의 시체가 발견된 이후 줄곧 '토막' 등 자극적 용어를 전면에 내세웠다.

사건의 실체와 의미보다는 자극적인 부분과 요소에만 집중한 언론 보도들이 일부에서 나오자 다른 매체들도 뒤질세라 따라가는 형국이었다. 곧 일산에서 여자 초등학생에 대한 참혹한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화면이 공개되면서 전국의 학부모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게 되었고 유사한 납치미수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우리나라에서 드디어 언론발 범죄의 물결(media crime wave)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기도 했다.

언론이 야기하는 '범죄의 물결'

1980년대 말 독일의 범죄학자 슈나이더는 "범죄 관련 보도를 할 때 재미있고 특별해 보이기 위해 영화 등 픽션에서 보여 주는 범죄의 모습과 유사하거나 이를 확대재생산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번 안양 사건도 예외는 아니었다.

때마침 개봉되어 흥행대박을 터뜨린 영화 '추격자'와 그 소재가 된 연쇄살인범을 최근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는 사이코패스(psychopath)라는 증상을 매개로 안양 어린이 살해범과 무리할 정도로 엮어 '재미있고 특별해 보이는' 기사를 작성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눈에 띄었다. 특히 범인 정씨를 아무 근거도 없이 1980~90년대에 발생한 화성연쇄살인사건과 최근 발생한 미해결 부녀자 실종사건을 모두 저지른 '희대의 살인마'로 포장하는 무책임함까지 나타났다.

외국의 언론은 근거 없는 음모론(conspiracy theory)을 무척 경계한다. 책임 있는 언론의 자세가 아닐 뿐 아니라 독자, 시청자들이 식상해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안양 사건 보도에서 일부 언론의 무책임한 '의혹 부풀리기'나 '음모론' 제기의 문제가 드러났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J씨 촌극'일 것이다.

인터넷에 떠도는 '카더라'식 이야기를 확인 과정

도 없이 기자들이 퍼 날라 기사화한 'J씨 이야기'는 전주에 사는 모 네티즌의 개인적인 호기심에서 비롯됐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발생 당시 수원에서 발생한 유사 사건의 용의자였던 'J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를 직접 만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는 그 내용을 자신의 개인 블로그와 방송사 게시판 이곳저곳에 올렸다.

해당 네티즌 본인도 자신의 블로그에 'J씨는 안양 사건 피의자 정씨가 아니다'고 밝혔음에도 일부 언론과 방송은 정씨를 '화성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 J씨'로 둔갑시켜 보도했다.

서러운 전과자, 동네북 '경찰'

으레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이 발생하면 초기에는 경찰이 제공하는 보도 자료에 의존한다. 더 이상 경찰에서 나올 게 없어지면 '부실수사' '초동수사 실패' 등 경찰 비난으로 언론은 지면과 화면을 채운다.

특히 '초동수사 문제'는 언론 입장에서는 만병통치약, '전가의 보도'다. 수십 년 전부터 잘 먹히던 약발이니 주저도 의심도 없이 쓴다. 경찰은 늘 초동수사에 실패한 '상습 전과자'이니 이번에도 그렇다고 몰아붙이면 변명도 못할 게다. 하지만 정작 초동수사가 뭔지 제대로 아는 기자를 아직 못 보았다. 과거처럼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훼손하거나, 시체를 옮기거나, 현장 보존을 못해 아무나 출입하게 놔두는 등의 진정한 '초동수사 실패' 사례는 좀처럼 발견할 수 없다. 대개 문제는 초동수사가 끝난 후 수사의 방향 설정이나 용의자군의 압축, 탐문수사 등에서 발생한다.

경찰 수사 결과 용의자 정씨는 2004년 부녀자 실종 사건의 범인으로 드러났다. 당장 일부 언론은 '경찰이 그때 제대로 수사했으면 혜진, 예슬 양이 안 죽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결과론'이라는 무적의 무기로 무장한 채 휘두른 치명타다. 결국 '경찰 부실수사가 두 어린이를 죽였다'는 얘기다. 그 기자들은 단 한번이라도 해당 경찰관들에게 아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 봤을까? 그 기사를 보고 유족들은 어떤 느낌을 받을지 잠깐이라도 살펴볼 수 없었을까?

미국 최악의 연쇄살인범 중 하나로 꼽히는 테드 번디는 워싱턴 주 일대에서 발생한 연쇄살인 사건 수사 당시 2,000여 명의 용의자 중 1,500번째 용의자였다. 물론 경찰의 방문과 조사도 여러 번 받았지만 그의 능란한 거짓말에 속은 경찰은 그냥 돌아갔다. 테드 번디가 잡혔을 때 미국 언론은 우리처럼 경찰을 죄인 만들지는 않았다.

결과론을 가지고 손가락질하기는 누구든 다 할 수 있지만 제한된 근거와 단서를 가지고 수많은 가능성을 탐색해 가는 수사라는 작업이 그리 쉬운 것이 아님을 잘 알기 때문이다.

어쩌면 언론과 방송의 '경찰 때리기'는 다분히 의도적인 측면이 있어 보인다. 적당히 때려 주면 고분고분 말 잘 듣고 필요한 것을 내어 주기 때문이다.

용의자 정씨가 충남 어머니 집에서 체포되었다는 소식은 언론에 즉각 '보고'되었다. 그가 압송되는 동안 모든 언론사 기자들이 경찰서에 모여 기다리고 있다가 용의자가 도착하자 '신문'을 시작했다.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참으로 희한한 광경이다.

미국이나 영국에서라면 아마 경찰은 '한 남자가 안양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보호 하에 있다'(A man is in police custody in relation to the Anyang case)는 짤막한 보도 자료를 내고 기자들의 질문에

'초동수사 문제'는 언론 입장에서는 만병통치약, '전가의 보도'다. 수십 년 전부터 잘 먹히던 약발이니 주저도 의심도 없이 쓴다. 경찰은 늘 초동수사에 실패한 '상습 전과자'이니 이번에도 그렇다고 몰아붙이면 변명도 못할 게다. 하지만 정작 초동수사가 뭔지 제대로 아는 기자를 아직 못 보았다.

연령대나 전과관계, 피의자 신분인지 등에 대한 추가설명을 해 주고는 "더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밝혀지는 대로 알려 주겠다"고 했을 것이다. 당연히 이후 중요 사실에 대한 지속적인 공개가 이루어질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후진적 경찰-언론 관계'는 경찰의 책임이 더 크다. 스스로 전문적이고 세련된 대언론 서비스나 언론 관계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그때그때 되는 대로 '현장 책임자가 알아서' 대응하는 관행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보다 언론이 먼저 용의자 신문

'문제의 핵심'은 드러내지 않고 늘 제자리만 맴돌거나, 제기된 문제가 제대로 고쳐지고 실행되는지 추적 보도하지 않는 언론의 태도를 볼 때 정말 언론이 스스로 지적하고 비판하는 대로 '바뀌길 바라는지' 의심이 간다. 용산 사건, 제주 사건 때 했던 비판과 지적들을 스스로 기억이나 하고 있는지, 기억한다면 이후 별다른 변화 없이 시간만 흘러 또 유사한 사건이 터진 이 상황에 대해 언론 스스로에 대해서는 왜 말이 없는지 묻고 싶다. '혹시 정말 문제들이 제대로 고쳐져 기삿거리가 없어질까 봐 걱정하는 것은 아닌지' 언론 식으로 의혹을 제기하면 뭐라고 답할까?

우리 언론의 범죄 보도를 둘러싼 문제들의 많은 부분은 '범죄 전문기자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영국 가디언지의 범죄전문기자(crime correspondent)는 대개 10년 이상 범죄 문제만 다룬다.

지난해 11월 영국의 언론비평지 미디어 서커스(Media Circus)는 '최고의 전문기자 5인'을 선정했는데 그중 한 명이 가디언지의 범죄전문기자 덩컨 캠벨이었다. 그가 선정 소감으로 남긴 말이다 "범죄 보도를 하는 묘미는, 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바로미터이면서 모든 사건마다 각각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점이에요. 내게 범죄 보도는 '뉴스의 심장'과 같아요."

캠벨과 같은 범죄전문기자가 없는 우리는 경찰이나 검찰, 법원 등 관서 출입기자가 정형화된 패턴의 기사들을 작성하다가 기간을 채우면 정치나 경제, 문화 등 '더 좋은 곳'으로 옮겨간다. 그리고 새로운 이들이 와서 같은 패턴을 답습한다. 시계열적, 종단적으로 추적해 문제를 끝까지 파헤치고 현실을 개혁해 내는 참언론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이유다.

경찰관 교육을 할 때 늘 당부한다. 왜 경찰이 되려고 했는지를 잊지 말라고. 격무와 반복된 일상에 치이다 보면 정의를 향한 꿈은 어느 새 사라지고 사건과 피해자가 귀찮아지기 쉬우니 이를 늘 경계하라는 뜻이다. 언론인에게도 묻고 싶다. 왜 언론인이 되었냐고. 아마도 많은 이가 '세상을 보다 긍정적으로 바꾸고 싶어서'라고 답할 것 같다. 범죄와 경찰을 다루면서도, 그 마음 그 꿈 잃지 말았으면….